



중고선가 상승, 현대의 수주/매출 성장 가이드선스와 Marjan 입찰

코멘터리

세가지 호재로 새해를 시작합니다.

중고선가 지수 상승..

① 중고선가지수가 2p 상승한 100p로 출발합니다. 벌크~탱커 대다수 선형의 선가가 올랐는데, 주로 선형의 표준 사이즈를 상향 조정한 것 때문인 것으로 추정합니다만, 시장은 단순 호재로 해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우디 해양 마르잔 드디어

② 사우디 아람코의 Marjan 등 입찰 소식이 업데이트되었습니다. 30십억\$+ 규모의 Marjan GOSP-4에서 현대중공업-사이펄 등 3개 컨소시엄이 최종 결합합니다. 그외의 2개 패키지(합산 30~40십억\$)에서도 8개 입찰처가 경쟁 중이고, 한국의 BIG3들도 이들과 조인트로 참여합니다. 올해 현대중공업의 해양 수주목표는 19억\$입니다.

2019년 LNG선 발주 더 많을 것

③ 클락슨은 2018년의 LNG선 발주를 65척으로 집계한 가운데, 클락슨 리서치는 2019년 LNG선 발주가 69척으로 작년의 초호황 이후에도 더 강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합니다. 당사도 해를 넘긴 옵션 등 20척, 모잠비크, 러시아 LNG 프로젝트에서 31척, FSRU 등으로 2018년에 못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해오고 있습니다. 2019년의 조선업 투자환경도 우호적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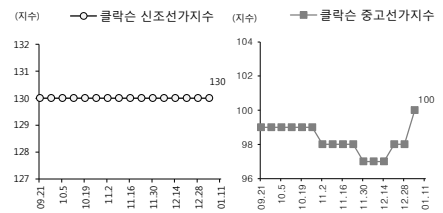
신년사들과 가이드선스

아래 표와 같이 BIG3의 신년사들이 모두 모아봅니다. 공통 키워드는 1) 원가 개선입니다. 신조 시장이 회복되었고 선가도 올랐지만 여전히 수주의 질을 더 끌어올릴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신조선가를 올리기 어렵기 때문이지 않겠냐고 부정적으로 해석할 필요는 없습니다. 올릴 것은 올리고 줄일 것은 더 줄여야 한다는 의미로 판단합니다. 원가 경쟁력은, 곧 수주 경쟁력, 생존입니다. 그리고 IMO 2020 환경 하에서, LNG-Fuel 등 2) 기술에 대해서도 공통적으로 짚습니다. IMO_2020 황산화물 규제에 따른 해체와 발주 증가가 2019년에 드디어 분출될지, 1년을 더 기다려야 할런지는 본 연구원도 참 궁금합니다만, 어쨌든 조선업에 우호적인 규제/환경의 변화는 이미 서서히 시작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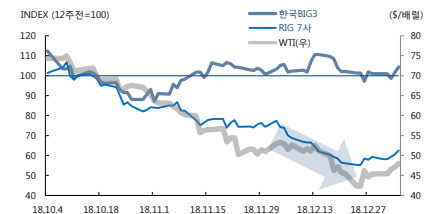
2019년에도 조선은 주도업종 중 하나입니다. 지속적인 업데이트를 권합니다.

대표 차트

▶ 마지막 주 중고선가지수 1p 반등



▶ 유가, RIG PLAYER, BIG3



▶ 나이지리아 Total EGINA Budget 이하로 가동 시작!



▶ 2018년 조선3사 신년사

2019년 목표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슬로건	다시 일어나 세계 제일 조선 해양!	2019 새로운 도약, 중공업 불활의 원년	-
목표	매출 목표 : 8조5천815억원 수주 목표 : 117억달러	-	-
추진과제	① 안전한 일터 조성 - 현장 안전 문화 확산 - 통합안전교육센터 교육 등	① 원가 경쟁력 확보, 수주 총력 - 기술, 구매 부문 : 설계 물량 감축 및 표준화 확대 - 원가 경쟁력 확보 (자재비 절감, 적기 조달) - 연구소 : 스마트 선박 및 친환경 선박 기술 개발	① 관리혁신(관행타파) - 의식수준 강화 및 시스템 개선 : ERP 시스템 복귀, 내부통제 강화, 리스크 관리
	② 원가절감 - 후판 등 원자재 가격 상승, 고정비 부담 증가에 대응 : 구조 최적화 설계, 공법 및 공정 개선, 전략적 기자재 구매 - 기타 : 생산성 향상 및 공기 단축, 기자재비 절감 : LNG선 공정관리 강화, 신선종에 대한 철저한 사전 준비		② 생산혁신 - 원가 경쟁력 확보 및 생산성 향상 : 생산부하 안정화(연 80만톤 생산체계 확보, 향후 100만톤 까지 확대) : 조달효율성 증대, 종합 설계 역량 향상 - LNGC, VLCC 양산체계 구축
	③ 기술 및 품질 강화 - IMO 환경규제 대응 : LNG추진선, 가스엔진 등 친환경 기술 고도화 - 첨단 ICT 융합 제품 성능 강화 및 혁신적인 신기술 개발 - 차세대 스마트십, 연진 스마트 솔루션 등 - 기타 : LNG선 관련 기술 경쟁력 강화, 글로벌 R&D센터 착공 - 품질 강화 노력 : 품질 실패비용 최소화, 품질표준 준수하는 품질문화 정착, 품질 협업체계 활성화		③ 기술혁신 - 차별화된 기술력과 제품에 대한 투자 : 글로벌 환경규제에 부합하는 친환경, 고효율 선박 개발 : 스마트십 개발 등 신기술 개발
	④ 소통과 화합 - 소통 강화 및 노사문화 쇄신 : 임직원화 소통 및 화합 강화, 노사문화 쇄신	② 목표달성 - 납기, 목표원가 준수 : BP매드독, FPU, ENI 코탈 FLNG 등에서 쌓은 노하우 활용	④ 교육 혁신 - 기업문화 혁신 : 결과 중심에서 과정 중심의 문화 인프라 구축 - 리더십 역량 강화 - 직원 자기전진 교육강화

주 시 뉴스

※ 상세 내용은 아래 해당 섹션 참조

새해 호재: 중고선가 상승, LNG, 가이드선스

- ▲ 중고선가지수 2p 상승한 100p로 새해 맞이
- ▲ Clarkson은, 2019년 LNG선 발주가 2018년보다 더 많을 것으로 예상!
- ▲ 현대중공업 수주 가이드선스 상향: 현대미포조선은 전년대비 +45%는 35억\$+ 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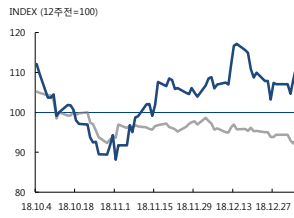
해양: 사우디 Marjan 입찰에 현대중공업

- ▲ 사우디 Aramco의 Marjan 입찰: 현대중공업 컨소시엄 등 3파전
- ▲ 사우디 Aramco의 Marjan 외에, 2개 패키지 경쟁: 8개 회사 + 한국 BIG3
- ▲ Abadi LNG 프로젝트의 Onshore 사이트 곧 결정



Peer Group 등 Index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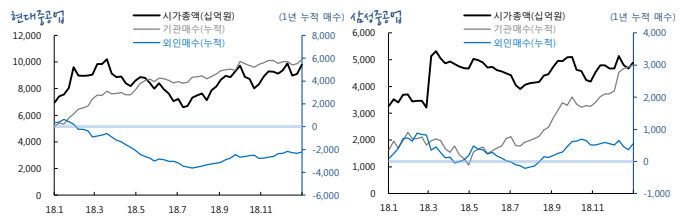
▶ 한국 주식시장 vs. 조선주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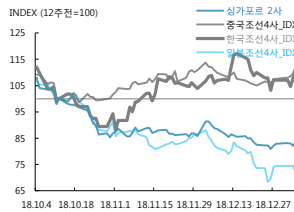
▶ 한국 조선4사 Performanc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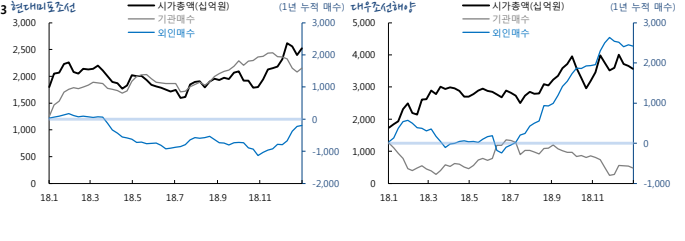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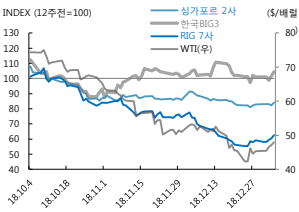
조선 수급



▶ 한/중/일/싱 조선주 주가 비교



▶ 유가 → RIG 선주, 싱가포르 Offshore 제작사, 한국 BIG3 현대미포조선



글로벌 피어그룹 주가 흐름

대분류	티커 / 회사명	시총(백만\$)	1W	1M	3M	3M 주가	1Y	3Y
지수	WTI		5.8%	9.3%	4.5%		22%	45%
	CRB INDEX		1.4%	5.7%	1.2%		10%	3%
	Capital Link Container Index		6.3%	0.7%	0.7%		13%	34%

조선사								
한국조선	현대중공업	8,018	7.8%	0.4%	3.0%		18%	79%
	삼성중공업	4,444	4.6%	0.4%	4.1%		5%	-3%
	대우조선해양	2,999	-2.5%	-3.9%	3.9%		101%	-36%
	현대미포조선	1,765	5.2%	1.1%	2.9%		40%	10%
	한진중공업	252	-9.7%	4.3%	32.1%		-58%	-51%
싱가포르	KEPPEL	8,677	0.7%	-5.1%	4.7%		-24%	2%
	SEMBCORP MARINE	2,794	2.6%	-8.2%	3.0%		-14%	-4%
중국조선	CSSC	2,266	2.3%	0.1%	6.2%		-46%	-58%
	CSIC	14,133	6.1%	5.6%	6.1%		-26%	-47%
	CSSC OMEC	1,786	7.5%	-3.5%	7.8%		-61%	72%
	YANGZUJIANG	3,231	3.3%	0.0%	2.4%		-16%	24%
일본조선	NAMURA SB	326	-7.0%	4.1%	26.3%		-40%	-51%
	MITSUBI ES	1,412	1.5%	4.4%	28.8%		-42%	-42%
	KAWASAKI HI	4,490	-2.8%	3.2%	28.7%		-44%	-44%
	SUMITOMO HI	4,089	-4.7%	17.2%	23.1%		-38%	22%
대만조선	CSBC CORP TAIWAN	400	-7.1%	6.7%	39.6%		-20%	-28%

엔진 / 부품								
엔진	MAN	16,112	0.1%	0.1%	-3.6%		-6%	-1%
	WARTSILA	11,633	1.4%	-0.1%	16.1%		-24%	9%
한국엔진	HSD엔진	126	0.4%	-3.3%	16.0%		90%	159%
	STX엔진	175	-4.3%	-6.8%	24.9%		-25%	-5%
	STX중공업	69	-8.1%	42.6%	75.7%		-87%	-95%
기자재	한국카본	269	-2.1%	-6.0%	1.9%		15%	11%
	동성화인텍	188	-1.6%	-5.0%	-3.6%		36%	69%
	세진중공업	163	1.7%	-9.5%	11.8%		32%	25%
	삼강엔터	103	4.3%	10.2%	16.0%		-4%	23%

대분류	티커 / 회사명	시총(백만\$)	1W	1M	3M	3M 주가	1Y	3Y
기름들								
RIG	TRANSOCEAN	5,312	8.7%	18.2%	45.4%		-34%	-29%
	SEADRILL	2,070	4.9%	26.1%	54.9%		-43%	-41%
	DIAMOND DRILLING	2,371	0.9%	14.6%	46.0%		-40%	-66%
	NOBLE	1,471	1.7%	26.0%	56.6%		-38%	-67%
	ENSCO	3,200	2.4%	28.1%	50.5%		-38%	-67%
	ODFJELL SE-A SHS	335	-0.3%	-1.3%	-5.8%		-8%	10%
	ROWAN COMPANIES INC	2,037	7.8%	29.6%	49.5%		-44%	-34%
	OCEAN RIG UOW INC - Dryship	2,806	0.0%	0.0%	19.8%		-1%	100%
IOC+	ExxonMobil	348,527	4.4%	10.4%	16.3%		-18%	-5%
	Shell	272,235	2.9%	-0.5%	10.2%		-6%	2%
	BP	144,512	3.6%	-1.2%	11.6%		-2%	58%
	Total	167,925	2.9%	-2.9%	15.1%		-1%	27%
	Chevron	222,848	2.0%	-5.5%	9.4%		-13%	135%
	ENI	68,344	4.3%	0.3%	11.9%		-1%	13%
	Equinor	88,189	4.4%	-5.2%	16.4%		5%	74%
ENG. FEED.	SBM	3,674	5.4%	-0.4%	14.3%		-14%	33%
	TechnipFMC	13,494	6.2%	11.2%	33.2%		-36%	20%
	SAIPEM	5,485	8.8%	9.6%	31.1%		-9%	58%
	NOV	16,935	3.7%	15.6%	38.0%		-30%	11%
	MODEC INC	1,745	-8.1%	25.1%	43.7%		-31%	33%
	WORLEY PARSONS	4,066	1.0%	14.2%	40.2%		-17%	162%

해운								
해운	MAERSK DC Equity	28,327	5.0%	-6.5%	-4.8%		-24%	6%
	SHIP FINANCE INTL LTD	1,686	6.1%	10.0%	17.3%		-26%	26%
	CLARKSON PLC	1,093	1.7%	-0.7%	20.9%		-28%	2%
	EURONAV NV	1,816	5.6%	15.7%	12.0%		-17%	-41%
	GOLDEN OCEAN GROUP LTD	1,311	6.1%	11.3%	30.3%		-22%	63%
	FRONTLINE LTD	873	7.0%	14.0%	24%		18%	51%
	NORDIC AMERICAN TANKERS LTD	288	1.6%	22.4%	6.2%		-14%	-85%
	KNOT OFFSHORE PARTNERS LP	729	5.2%	-8.1%	14.6%		-15%	34%
LNG	HOEGH LNG HOLDINGS LTD	410	8.4%	-2.5%	-8.8%		-36%	54%
	GASLOG LTD	1,523	9.5%	14.0%	10.3%		-20%	137%
	GASLOG PARTNERS LP	1,079	7.6%	-0.9%	11.9%		-12%	71%
	GOLAR LNG PARTNERS LP	908	6.9%	3.7%	33.3%		-46%	6%
LPG	BW Offshore	1,365	4.1%	-3.1%	44.1%		-2%	41%
	DORIAN LPG LTD	403	4.1%	11.9%	23.8%		-25%	41%
	EXMAR NV	425	-1.5%	11.2%	10.2%		-12%	-38%



ASP & 실적관련(국내외)

▲ 중고선가지수 2p 상승한 100p로 새해 맞이

- 벌크 모든 선형의 중고선가가 13%~26% 크게 오르며 새해를 시작
- 수에즈막스 리세일 선가가 \$2m 오른 \$66m, 5년 VLCC~핸디막스도 5%~7% 상승
- 새해를 맞이하며, 선형의 표준 크기를 상향한 영향도 있음

외신 보도들

- 뉴스/FACT [☞ 당사 의견](#)

▶ IMO 2020

△ IMO 2020에 대한 컨테이너 선사들의 입장: 위기가자 기회

- 컨테이너선사들의 입장은, 원가(유류비) 상승에 따른 라이너 서비스 붕괴/해체 등으로 운임을 끌어올릴 수 있다는 기회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평가

> Hapag-Lloyd

- 컨테이너 업체는 유류비 상승을 반영할 계획이 없는 상황이지만, 향후 유류비를 부과하는 방식을 새로이(rework) 할 수 있음
- 당사는 MFR(Marine Fuel Recovery)로 대응: sea freight와 MFR(유류비)를 별도로 지불
- 또한 새로운 규제(2020_SOX)가 선박 해체 증가로 이어지고, 해운 시장의 수요-공급 안정화에 기여할 것

> 현대상선

- 시장의 CAPA를 조정하는 기회가 될 것
- 따라서, 저유황유가 가장 선호되는 옵션: 2020년까지 LNG 인프라스트럭처 확보에 어려움이 있고, Scrubber 장착에도 제한이 있기 때문

> Offen

- 시장이 필요로 하는 충분한 저유황유가 있는지에 의문
- 해체 증가와 부족한 선박 인도(공급)로, 선박과잉이 2019년에 해소될 것으로 기대
- 또한 Scrubber 장착 등을 위해, 선박들의 가용 시간이 올해 15일 감소되어서, 단기에 시장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

> NYK Europe

- 2020년의 초과비용은 상당부분 운임에 전가될 것

△ IMO 2020에 대한 조선사들의 입장

> 일본 Omonichi Dockyard

- Scrubber에 거부감을 느끼는 선주들로부터 MGO, mono-fuel 등에 대한 요청을 받음: mono-fuel은 13% 연비절감 효과도
- 해운사들이 불안정(unstable)한 연료를 사용함에 따라 엔진 문제가 발생할 것이며, 이에 따라 개런티 기간에 놓인 선박들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음
- 오일 컴퍼니들이 해운업을 위한 적합한 hybrid fuel을 특정할 수 없을 것
- 정유사들이 Bleding fuel의 표준 품질을 제공할 수 없기 때문에, MGO를 사용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봄

> 중국 Jiangnan SY

- 중국의 수리 조선사들이 Scrubber Retrofit 때문에 호황을 누리는 가운데, Huangpu Wenchong과 같은 신조선 야드도 MSC 등으로부터 Retrofit 계약을 수행 중
- 가스를 운반하는 VLEC, VLGC 등은 IMO 2020 대응에 용이하지만 여타 선박들은 어려움
- 2019년 벌크와 소형 컨선(Feedership)의 발주 증가를 예상하며, LNG선은 2018년 대비 감소 예상

> 대우조선해양

- 선박 해체가 증가 예상
- 여전히 다수 선주들은 Wait-and-See로 기술 채택을 지켜보는 가운데, LFS가 일단 중심이지만 IMO 2050에 대한 고민도 있을 것
- LNG선 발주 수요는 2019년에도 계속될 것

> 현대중공업

- LSFO의 가격과 공급은 여전히 불확실한 상황
- 다수 선주들이 LNG-Fuel 선박을 대안으로 고민 중이며, 현대중공업은 벌크, 탱커, 컨테이너선 LNG-Fuel 모두를 건조 중
- 조선사들의 도전/기회는 LNG-Fuel을 더 좋은 기술과 더 낮은 가격으로 공급하는데 있음
- 2019년의 신조선시장은 더 좋아질 것으로 예상하며, 조선업은 신조선가 인상을 통해 수익성을 끌어올리려고 시도할 것이라고 진단
- 또한 조선업은 IMO 2020 이슈를 앞둔 가운데, 캐파 감추기 수혜를 누릴 것
- > Wartsila Marine Solutions
- IMO 2020 대응을 위한 hybrid solution에 큰 관심이 모이고 있으며, 특히 Scrubber에 큰 관심이 있음
- 그러나 2020년 선박의 1.5%만이 Scrubber를 장착할 수 있어, 2020년 대다수 선박이 저유황유를 이용하며 대응할 것

▶ LNG

△ 2018년 대형 LNG선 60척 발주

- 클락슨 기준으로 (대형~소형) 70척, 실제 65척이 발주된 것으로 잡히는 가운데
- Tradewinds 집계로는 대형 LNG선의 2018년 발주는 60척: 2004년의 68척 이후 최고 규모
- 잔고/선대 비율도 23%
- 또한 소형 또는 특수 LNG선도 다수 발주되었는데, 중국 Jovo의 80k-CBM 2척, Knutsen-미포의 30k-CBM 1척 등 10척에 달함

▲ Clarkson은, 2019년 LNG선 발주가 2018년보다 더 많을 것으로 예상!

- 선박 브로커리지 자이언트 Clarkson은 2018년 65척 LNG선 발주에서, 2019년은 69척으로 예상
- 2018년의 평균 운임은 \$85,000/일, 글로벌 LNG 수주잔고는 136척
- ☞ [당사도, 해를 넘긴 옵션 20척, 모잠비크와 러시아 프로젝트에서 31척으로,](#)
- ☞ [2019년이 2018년의 초호황에 비해 크게 꺾이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 및 주장하고 있습니다.](#)

△ 12월 삼성중공업의 LNG선 7척 중 1척이 덴마크 Navigare의 첫 발주

- 덴마크 투자회사가 삼성중공업에 12월 중순 삼성중공업에 LNG선 1척을 발주한 것으로 늦게 알려짐: \$186m
- Navigare는 2017년 4월 MR탱커 2척을 매입하며 해운업으로 진출했고, 이번에 LNG선을 발주하며 가스 시장에도 진출
- Navigare는 13척의 선박 보유: 탱커 6척, 10,000-teu급 컨선 4척, 벌크 3척을 보유 중이다가
- 18년 11월 수에즈막스 탱커 1척을 매입했고, 12월 LNG선도 발주

△ Alpha Gas가 12월 대우조선해양의 LNG선 수주 중 1척

- 12월28일 대우조선해양이 수주한 174k-CBM 1척(2021년 인도)은 그리스 Alpha Gas의 옵션 행사였던 것으로 전해짐
- 발주처의 공식 확인은 없음
- 이로써 Alpha Gas는 3월 첫 투기 발주, 6월 옵션 행사 1척, 그리고 12월 마지막 1척으로, 총 4척을 건조하게 됨
- 대우조선해양은 2018년 18척의 LNG선을 수주: 클락슨 17척 집계



▶ 해양

▲ 사우디 Aramco의 Marjan 입찰: 현대중공업 컨소시엄 등 3파전

- Marjan은 사우디 Aramco의 Offshore gas-oil separation platform complex 구축 사업: \$3십억 이상, GOSP-4로 불림
- : Accommodation platform, tie-in platform, gas compression platform, production platform, auxiliary platform, flare platform, subsea pipeline 등으로 구성
- 10만톤 구조물의 GOSP-4 complex는 475,000b/d, 750mcf/d를 생산 예정
- Technical/Commercial Offer가 작년 12월말에 제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2월 중순 정도가 데드라인인 것으로 업데이트
- 3개 컨소시엄으로 압축해 경합 중인데, 1) 인도 L&T + 아부다비 NPCC, 2) 이태리 Saipem + 현대중공업, 3) 미국 McDermott + 중국 COOEC가 참여 중
- 이외에 Subsea 7,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등 6개 회사도 일부 물량에 대해 입찰에 참여 중인 것으로 전해짐
- 한국의 대형 조선사들은 대형 해양 구조물 경험이 많다는 장점이 있지만, 중국/인도/중동 사업자들도 실행가능한 프로젝트라는 평가
- 10만톤 규모의 구조물 및 프로젝트는 사우디가 최근 진행한 사업 중 가장 큼
- Marjan의 전체 사업 규모는 Onshore와 Offshore를 합쳐서 \$12십억에 달함: GOSP-4 외에 2개~3개, \$4t십억 규모의 offshore 패키지도 별도로 입찰 중
- 최대 5개, \$5십억의 Onshore 패키지도 경합 중
- GOSP-4는 GOSP-2와 3에서 10km 이내에 입지하며, Tanajib Onshore 플랜트에서 북동쪽으로 85km에 입지
- ☞ 현대중공업의 수주를 기원합니다.

▲ 사우디 Aramco의 Marjan 외에, 2개 패키지 경합: 8개 회사 + 한국 BIG3

- Marjan(GOSP-4 Facility)외에 추가 2개의 패키지 경합도 진행 중
- 사우디아람코의 2개 Offshore Package(\$3십억~\$4십억)에, 8개 사업자들이 참여 중: Technical/Commercial Offer를 1월말까지 제출할 예정
- 입찰에 참여한 사업자들은 인도 L&T, 말련 Sapura Energy, 중국 COOEC, 미국 McDermott, 이태리 Saipem, 오슬로상장사 Subsea 7, 아부다비 NPCC, 영국 Lamprell로 전
- 이 입찰처들은 2개 패키지 중 한개나 두개 모두에 참여 중
- 또한 한국의 조선 BIG3도 2개 패키지에 모두 참여 중인데, 단독 입찰이 아닌 컨소시엄 형태로 참여할 것으로 짐작
- 패키지1은 3개의 tie-in platform, 9개의 WHP, 200km subsea pipeline 등으로 구성
- 패키지2는 GCP(Gas cap production) network: 2개의 tie-in platform과 2개의 GCP WHP
- Marjan과 2개의 패키지 이후에도, Aramco는 올해 하반기 Zuluf Offshore Oilfield Redevelopment 프로젝트 입찰을 시작할 계획
- ☞ Marjan은 현대중공업 컨소시엄이, 그리고 패키지 2개에서도 삼성중공업이나 대우조선해양의 수주를 기대합니다.

▶ TransOcean, Chevron과 \$830m 규모 드릴쉽 용선 계약 체결

- TransOcean은 Chevron과 싱가포르 Jurong에서 건조 중인 드릴쉽 2기 중 1기의 용선 계약을 체결
- 5년 \$830m, 2021년 하반기 GOM 투입
- ☞ 드릴쉽 용선 자체는 업체에 긍정적인 뉴스이지만,
- ☞ Jurong 드릴쉽이 용선된 것이라는 점 때문에 뉴스의 영향 해석은, "중립"입니다.

▲ 삼성중공업이 제작한 Total의 Egina FPSO 가동 시작: Budget보다 10% 절감

- 200,000b/d 생산량, 2.4백만 배럴 저장용량의 Egina FPSO가 생산을 개시
- Egina는 2013년에 사업 승인이 떨어진 \$16십억 Budget으로 시작되었는데
- 초기 계획보다 10%, \$1십억 작은 원가로 가동을 시작함
- : 44개 유형의 drilling program의 훌륭한 performance 덕분, drilling time이 30% 줄어듦
- Egina는 나이지리아의 오일 생산량의 10%를 차지하게 됨: Total의 생산량도 기존 65,000b/d에서 265,000b/d로 증가
- 사업 지분은 Total 24%, CNOOC와 NNPC가 45%, Petrobras 16%, Sapetro 15%를 차지
- ☞ 늘 CostOverrun이 발생하는 해양 사업들에 비해, Total의 나이지리아 공사는 원가를 오히려 줄이고 잘 끝났습니다.
- ☞ 향후, Total의 후속 나이지리아 공사를 발주를 기다려봅니다. 삼성중공업의 나이지리아 시장 과정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 Abadi LNG 프로젝트의 Onshore 사이트 곧 결정

- Inpex의 Abadi 9.5MTPA 프로젝트의 Onshore가 South Tanimbar 지역에 입지를 곧 결정
- 아직 토지매입이 끝나지 않아, 정확한 위치는 발표하지 않은 상황
- Abadi는 FLNG로 준비되다가, 인도네시아 Joko Widodo 대통령 당선 이후, 로컬 경기 부양을 위해 Onshore로 변경되어 추진
- 향후 Onstream은 2027년으로 예정: 지분 구조는 INPEX 65%, Shell 35%
- ☞ LNG-FPSO는 아니더라도, FPSO, FPU 발주를 기다려봅니다.

▶ 기타

▲ Clarksons Platou Securities, 2019년 해운 시장 "새벽"으로 평가

- 수주잔고가 20년 최저
- 벌크의 잔고/선대는 10%로 17년 최저, 탱커는 11%로 22년 최저
- 컨테이너선도 12%로 가벼운 편



한국 조선업 수주와 수주설

▼ Clarksons 신규 수주 업데이트

① Daewoo (DSME) → Unknown, LNG(173400) 1척

- Maran의 LNG선 옵션 행사로 추정
(12월4주) 1) Maran은 10척의 LNG선과 1기의 FSRU를 발주해 선대가 38척에 달하지만, 추가 옵션 행사를 고민 중
(12월3주) ▲ Angelicoussis의 Maran Gas, DSME에 LNG선 1척 추가 발주

② Daewoo (DSME) → Alpha Gas, LNG(173400) 1척

- 위의 LNG 섹션 참조

▼ 신조 발주설(뉴스 단계)

▷ Evergreen, 중국에 최초로 신조 발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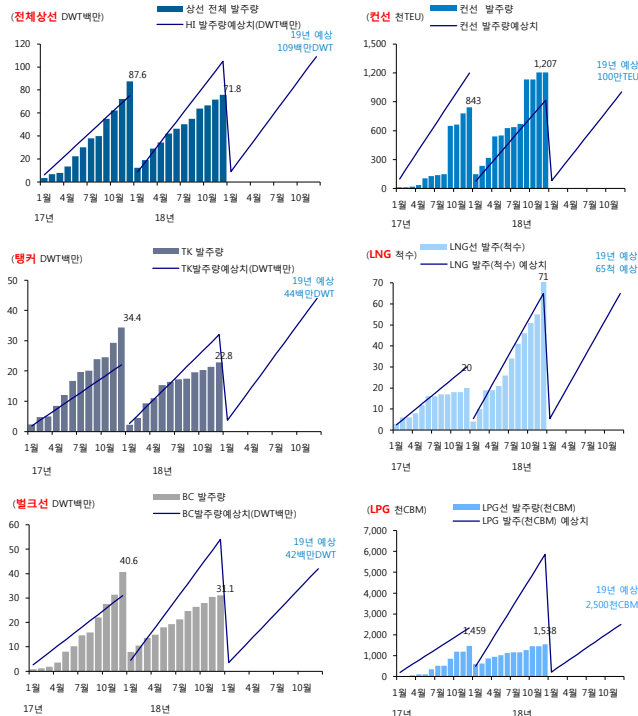
- 대만 Evergreen은, 중국 국영 Jiangnan SY에 2,500-teu 4척을 2021년 인도로 발주
- Evergreen은 여태 주로 일본 대만에서 신조를 해왔으며, 중국 건조 선박은 용선조차 하지 않았음
- 작년 8월 Evergreen은 14척의 2,500-teu 신조를 준비했지만 척수를 4척으로 줄여 발주
- 또한 1,900-teu 22척을 함께 준비해 먼저 용선 발주했는데, 현대미포조선이 Mitsui를 통해 6척 수주한 바 있음
: 그 외는 일본 Imabari, 중국 Yangzijian을 통해 건조

▷ 러시아 Sovcomflot, 자국 Zvezda에 LNG추진 MR탱커 발주

- 러시아 SCF Group의 Sovcomflot은 세계최초로 LNG-Fuel MR탱커(51k-DWT) 3척을 Zvezda조선에 발주
- 해당 선박은 CO2를 기존보다 27%, NOx를 85% 감축하는 스텝
- SCF는 현대삼호중공업으로부터 LNG-Fuel 아프리카막스 시리즈를 인도 중이며
- 이미 Zvezda에 144k-DWT 아프리카막스 탱커 2척을 2018년 9월에도 발주한 바 있음
- Sovcomflot은 144척, 12.5백만DWT의 선대를 보유; 88척이 ice class이며
☞ 한국 조선업에 도와주고 있지만, Green field 조선사가 LNG추진선을 제대로 제때 인도할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당사 예상 대비 발주와 발주 LIST

▶ 당사예상 대비 발주 추이



클락슨 신조 발주: 한/중/일

주석: 클락슨 입력 DATA만 & 해양은 뉴스/공시 기준

국가	조선사	계약일	발주 국가	발주처	선종	크기	인도	척수
18년12월2주								
BIG6	Samsung HI	18.12.12	Unknown	Unknown	LNG	174k cu.m.	2021	1
		18.12.6	일본	Yokohama Kasei	LNG	174k cu.m.	2021	2
		17.10.17	Unknown	PTI (Suez Canal)	FSRU	170k cu.m.	2021	1
	Hyundai Samho HI	18.12.11	일본	Yokohama Kasei	LNG	174k cu.m.	2020~2021	3
	Daewoo (DSME)	18.12.10	유럽	Maran Gas Maritime	LNG	173k cu.m.	2021	1
	Hyundai HI (Ulsan)	18.12.6	유럽	Ciner Demetçilik	TK	158k DWT	2020~2021	4
중국	Dalian Liaonan	18.11.30	중국	COSL	OFF-SUPP	4k DWT	2020~2021	4
	AVIC Dingheng SB	18.12.5	중국	Shanghai Marine Co Ltd	PTK	10k DWT	2020	1
	Taizhou Kouan SB	18.12.8	중국	Shanghai Marine Co Ltd	BULK	60k DWT	2020	2
	Wuchang SB Group	18.11.30	중국	COSL	OFF-SUPP	3k DWT	2020~2021	8
	COSCO HI Yangzhou	18.12.12	아시아	First Ship Lease	PTK	114k DWT	2020~2021	2
		18.10.1	유럽	Goldenport Shipping	BULK	64k DWT	2020	2
일본	Murakami Hide	18.10.1	일본	MMI Progress Line	LPG	5k cu.m.	2019	1
	Imabari SB Marugame	18.3.1	일본	Unknown Japanese	BULK	209k DWT	2020	1
	Imabari SB (Imabari)	18.5.1	Unknown	Unknown	CONT	2k TEU	2019	1
		18.3.1	Unknown	Unknown	CONT	2k TEU	2019	1
		18.2.1	아시아	Western Marine Corp	BULK	38k DWT	2021	1
		18.2.1	아시아	Western Marine Corp	BULK	38k DWT	2021	1
18년12월3주								
BIG6	Hyundai Mipo	18.12.27	Unknown	Unknown	PTK	25k DWT	2020	6
	Samsung HI	18.12.24	유럽	GasLog	LNG	174k cu.m.	2021	2
		18.12.19	Unknown	Unknown	LNG	174k cu.m.	2021	1
	Hyundai Samho HI	18.11.1	유럽	Cardiff Marine	LNG	174k cu.m.	2021	2
	Daewoo (DSME)	18.12.18	Unknown	Unknown	LPG	174k cu.m.	2021	2
	Hyundai HI (Ulsan)	18.10.8	Unknown	Unknown	LPG	80k cu.m.	2020	2
한국	Daehan Shipbuilding	18.12.19	유럽	Eneset SA	TK	158k DWT	2020	2
중국	Nantong COSCO KHI	18.9.1	Unknown	Renmin Hae. Pte. Ltd	BULK	208k DWT	2020	1
	Wuhu Shipyard	18.12.18	유럽	DorcoStar Rediet	PTK	22k DWT	2021	2
	Dalian COSCO KHI	18.9.1	Unknown	Renmin Hae. Pte. Ltd	BULK	61k DWT	2020	1
	Yangzi Xinfu S.B.	18.10.1	Unknown	Unknown	BULK	208k DWT	2021	2
	Taizhou Kouan SB	18.12.26	중국	Shanghai Gargio	BULK	56k DWT	2020	2
	Zhoushan Changhong	18.12.19	유럽	Gerchicon	CONT	2k TEU	2020	3
일본	New Times SB	18.12.14	한국	Palara Shipping Co	BULK	210k DWT	2020	2
	GSI Nansha	18.12.13	중국	CSC Shipping Tacke	PTK	50k DWT	2020	2
	Imabari SB Marugame	18.5.1	일본	Unknown Japanese	BULK	81k DWT	2020	1
		18.3.1	일본	Unknown Japanese	BULK	81k DWT	2019	2
	Imabari SB Saijo	18.5.1	일본	Unknown Japanese	BULK	240k DWT	2020	1
	Imabari SB Hiroshima	18.5.1	일본	Unknown Japanese	BULK	81k DWT	2020	1
19년01월1주								
BIG6	Daewoo (DSME)	18.12.27	유럽	Alpha Gas	LNG	174k cu.m.	2021	1
		18.12.14	Unknown	Unknown	LNG	173k cu.m.	2021	1
중국	Jiangnan SY Group	18.12.30	중국	Imag-OW Marine	LPG	86k cu.m.	2021	1
		18.12.28	아시아	Evergreen Marine	CONT	3k TEU	2021	4
중국	CSC Jiangdong	18.12.28	중국	Shanghai Hae. Pte. Ltd	BULK	13k DWT	2020	4



국내 보도

▶ 공통 보도

▷방사청 "보증부담 50%줄여 작년 조선업계에 1조원 집행"

<https://bit.ly/2Qsf2gi>

방위사업청은 1일 경영 여건이 어려운 국내 조선업계 지원을 위해 작년 보증 부담을 절반으로 줄이는 방법으로 1조원의 예산을 집행했다고 밝혔
방사청은 "2013년부터 시작된 조선업계 경기 불황의 여파가 누적되면서 작년부터는 업체들이 착수 및 중도금을 받기 위한 '지급보증'에 많은 애로를 겪어왔다"며
"기성대금 지급 때 보증을 50%만 받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방법으로 조선소에 대한 보증 부담을 완화해 함정 건조에 필요한 자금을 제때 지급했다"고 언급
또 보증 여력이 부족한 조선소에 대해 한시적으로 보증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마련해 5천144억 원을 지급
보증 완화는 수주 악화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조선업계와 협력업체, 지역경제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와 공동으로 작년 4월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를 통해 협의 추진

▷조선 빅3 일제히 시무식..."조선업 부활 원년 만들자"

<https://bit.ly/2Fcgltv>

불황터널의 출구를 향해 달리고 있는 대형 조선사들이 시무식을 통해 2019년을 '조선업 부활의 원년'으로 만들겠다고 다짐
3일 현대중공업은 서울과 울산에서 각각 가삼현 사장과 한영석 사장 주재로 개최한 시무식을 통해
올해 슬로건을 '다시 일어나 세계 제일 조선 해양'으로 정하고 흑자 전환하겠다고 언급
삼성중공업 남준우 사장은 신년사에서 "어느 누구와의 경쟁에서도 이길 수 있는 원가 경쟁력 확보와 수주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
대우조선해양 정성립 사장은 이날 거제조선소에서 개최한 시무식에서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완전한 정상화를 위해 끝까지 고삐를 조여야 한다"고 당부

▷한국 조선업, 지난해 7년 만에 수주점유율 1위 달성...LNG선이 '견인자'

<https://bit.ly/2GXWAlR>

4일 영국의 조선해양시황 분석기관 클락슨리서치 조사에 따르면 한국 조선업은 2018년 1263만CGT(263척)의 선박을 수주해 세계 1위를 차지
이는 글로벌 수주물량의 44.2%
이어 중국 915만CGT(438척), 일본 359만CGT(176척) 순
한국은 연간 세계 수주량에서 2011년 1위를 차지한 이후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6년 연속 중국에 밀려 2위
지난해 하반기부터 7년 만에 글로벌 연간 수주 '세계 1위' 달성이 기정사실로 됐으나 이번 조사를 통해 글로벌 1위 탈환
현대중공업,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은 지난해 전 세계에서 발주된 584만CGT(76척)의 LNG운반선 중 563만CGT(66척)를 수주
이는 96.4%의 점유율로 한국 조선사들이 글로벌 LNG선 수주를 싹쓸이한 것

▶ 현대중공업 보도

▷현대미포조선, 올해 매출 3조원 전망

<https://bit.ly/2AwqzMY>

현대미포조선은 올해 매출액이 3조원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한다고 3일 공식

▷현대미포조선, 올해 첫 선박 인도...올해 58척 예정

<https://bit.ly/2AvSzkR>

현대미포조선은 올해 첫 선박을 선주사에 인도했다고 4일 밝혔
이날 현대미포조선은 일본 MOL로부터 2017년 6월 수주한 5만t급 PC선 1척에 대한 인도식을 열어..
현대미포조선은 이 선박을 비롯해 1월에만 모두 9척을 시작으로, 2019년 한 해 동안 전년(41척)보다 17척이 증가한
선박 58척(PC 34척, 컨테이너운반선 14척, RO-RO 4척, LPG운반선 1척, LEG운반선 4척, 유황운반선 1척)을 인도할 계획

▷현대삼호중공업 올해 29척 건조·매출 3조4천억 목표

<https://bit.ly/2TrafVo>

현대삼호중공업 이상군 사장을 비롯한 임원과 부서장 70여명은 전날 영암군 삼호읍 호텔현대미포 야외광장에서
새해 해맞이 행사를 갖고 이같은 경영목표 달성을 다짐
이 자리에서 이상군 사장은 2019년 경영목표를 매출 3조4000억원(29척 건조), 수주액은 44억달러로

▷현대중공업 올해 수주 목표 117억달러...전년보다 15% 상향

<https://bit.ly/2C2ILZe>

현대중공업이 올해 매출 목표를 8조 6천억원, 수주 목표를 117억 달러로
전년 목표인 102억 달러에 비해 15% 높은 수준으로 제시
한영석 현대중공업 사장은 신년사에서 "수년째 계속되는 조선해양 불황과 빠른 기술 진보에 따라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기회와 위협 요소가 공존하고 있다"며 수주 목표를 공개
현대미포조선 등을 포함한 현대중공업그룹 조선부문의 수주 목표는 159억 달러



▷ 현대중공업, 대만선사 TMT와 선박 특허 소송전

<https://bit.ly/2AxHtSj>

현대중공업이 대만 선사 TMT(Today Makes Tomorrow) 대표 노부 수 회장과 선박 특허 침해 금지·예방 청구 소송전을..
2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63부(박원규 부장판사)가 소송을 진행
원고는 모리모토 노부요시(노부 수 회장의 다른 이름), 피고는 현대중공업과 현대삼호중공업
원고 측은 "피고가 건조한 배에 노부 수 회장의 혁신적 배관구조 특허 등이 적용됐다"고..
피고 측은 "특허 침해 사실이 정리되지 않은 데다 이미 배를 해외 제 3자에게 넘긴 상황이어서 금지·예방 청구가 인정될 수 없다"고..
재판부는 현 단계에서 분쟁을 끝내기 어렵다며 소송을 이어가겠다고..
아울러 재판부는 양측이 사실관계를 설명하는 자료를 내라고..
다음 변론기일은 오는 3월 7일

▷ 현대중공업지주, 경영자문업체 '현대미래파트너스' 설립

<https://bit.ly/2CTS1PX>

현대중공업지주는 사업자문·기업경영 자문 업체 '현대미래파트너스'를 설립, 자회사로 편입한다고 2일 공시
현대미래파트너스는 현대중공업지주가 자본금 50억원을 출자해 설립한 신규 법인으로, 그룹의 인수중 사업 발굴을 위해 설립

▷ 현대중노조 "논란 문구 삭제·수정 않으면 잠정합의안 폐기"

<https://bit.ly/2C6atDd>

현대중공업 노조는 4일 "사측이 잠정합의안 내 문구 삭제와 수정을 거부하면 잠정합의안을 전면 폐기하겠다"고 밝힘
노조가 문제 제기한 대표적인 문구는 잠정합의안 간사회의록 2번 문항
'노동조합은 사업 분할, 지주사 전환, 오일뱅크 사업 운영 등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부분
노조는 이런 내용을 담은 잠정합의안에 서명하고도 노조 내부에서 노조 활동을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라는 비판이 나오자 잠정합의의 직후 사측에 삭제·수정을 요구
노조는 "잠정합의안 도출 과정에서 과오를 인정한다"며 "해당 문구를 삭제·수정한 뒤 잠정합의안 찬반투표를 진행하겠다"는 입장
이에 따라 지난해 12월 27일 잠정합의안이 도출된 이후 일주일여 넘도록 조합원 찬반투표 일정을 잡지 못한 상황
지난해 연내 타결을 목표로 잠정합의안을 마련했으나, 투표 일정이 해를 넘기면서 2016년과 2017년에 이어 3년 연속 해를 넘겨 투표할 예정

▶ 삼성중공업 보도

▷ 삼성중, 세계 최대 에지나 FPSO 첫 원유생산 성공

<https://bit.ly/2Fd4CIB>

삼성중공업은 지난달 29일(현지시간) 세계 최대 규모의 에지나 FPSO가 해상 시운전을 마치고 첫 원유 생산에 성공했다고 3일 밝힘
에지나 FPSO는 삼성중공업이 2013년에 나이지리아에서 수주한 해양 프로젝트
삼성중공업이 설계와 구매, 제작, 운송, 시운전 등을 총괄하는 턴키 방식으로 수주한 이 프로젝트의 계약 금액은
약 34억 달러로 FPSO 사상 최대 수주 금액으로 기록된 바 있음

▶ 대우조선해양 보도

▷ 대우조선, 임단협 연내 타결 성공...노조 투표 50.9%로 가결

<https://bit.ly/2C1Vt1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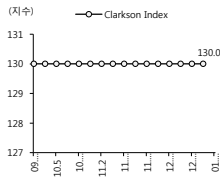
대우조선해양 노동조합이 올해를 하루 남기고 회사와 마련한 임금 및 단체 협약 잠정합의안을 전체 조합원 투표에서 가결시키면서 노사간 임단협이 극적으로 타결
전체 조합원 5871명 중 5306명이 투표에 찬성했으며 이 중 2699명(50.9%)이 찬성
앞서 노사가 마련한 잠정합의안에는 △기본급 2만1000원(0.97%) 인상(호봉승급분 별도) △임단협 타결 격려금 150만원 지급
△상여금 300% 월 분할 지급 △생산장려금 월 4만원 지급 △생산직 신규채용 시행 △생산 현장 아웃소싱 금지 등의 내용이 담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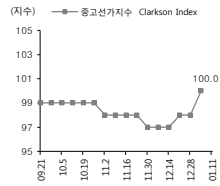
▷ 대우조선해양, 2018년 단체교섭 조인식 열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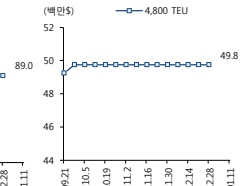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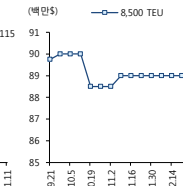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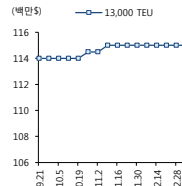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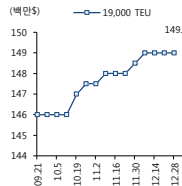
<https://bit.ly/2Tup6a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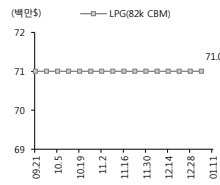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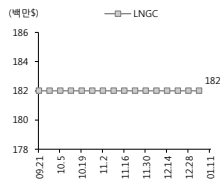
대우조선해양 노사가 새해 첫 조업을 시작하는 지난 3일 옥포조선소에서 2018년 단체교섭 조인식을 갖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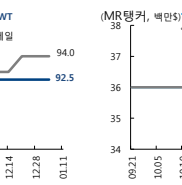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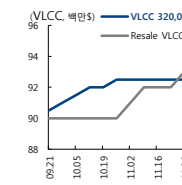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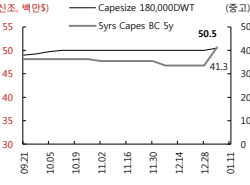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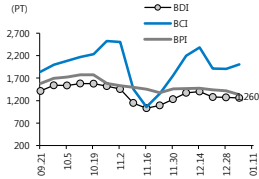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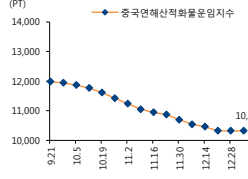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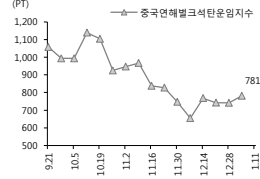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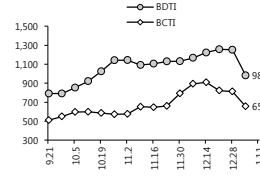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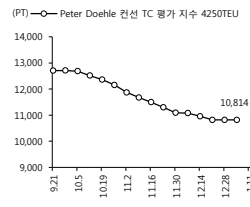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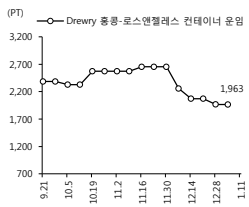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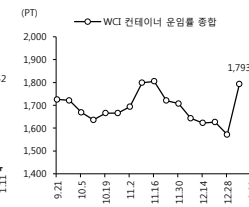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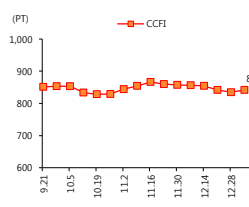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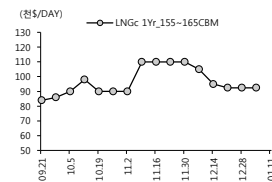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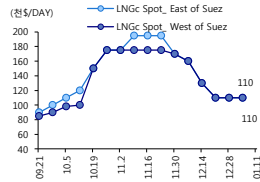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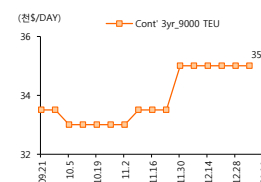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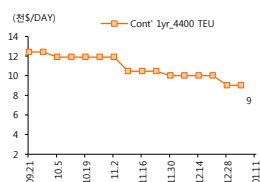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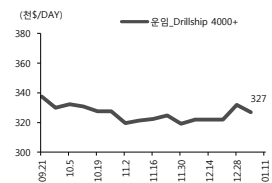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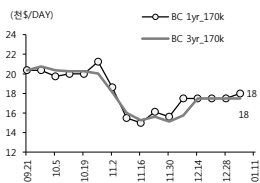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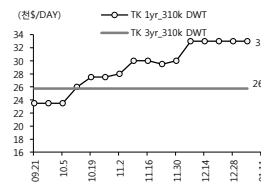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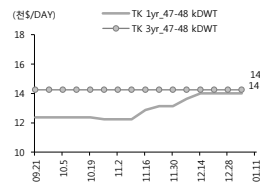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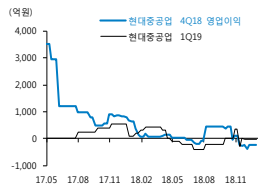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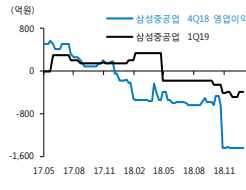


Consensus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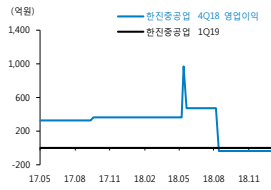
▶ 현대중공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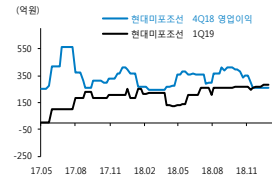
▶ 삼성중공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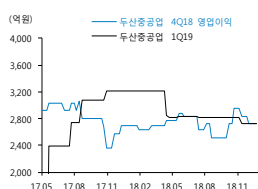
▶ 한진중공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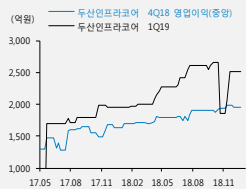
▶ 현대미포조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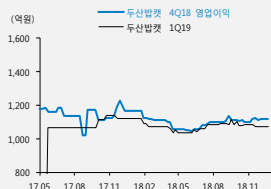
▶ 두산중공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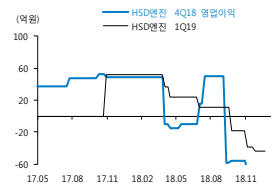
▶ 두산인프라코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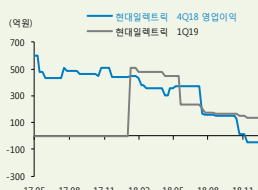
▶ 두산밥캣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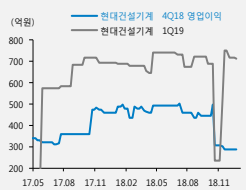
▶ HSD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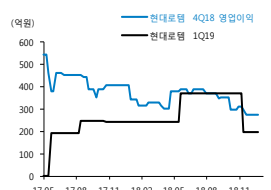
▶ 현대일렉트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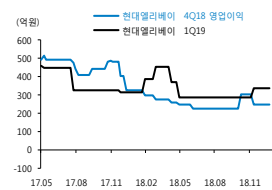
▶ 현대건설기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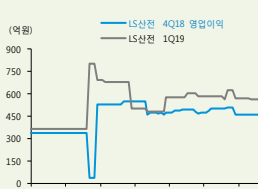
▶ 현대로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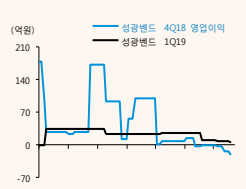
▶ 현대엘리베이터



▶ LS산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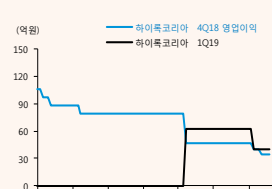
▶ 성광벤드



▶ 태광



▶ 하이록코리아



출처: Dataguide

▶ 조선/기계 EPS, BPS 등 연간 컨센서스 추이

그룹	종목	2018 EPS(원)								Chang(%)		VALUATION		
		다섯달전	네달전	세달전	두달전	181208	181215	181222	181229	19.01.04	2달전 대비	4주전 대비	2018 PER	증가
조선	현대중공업	-3,060	-4,025	-4,761	-5,025	-2,311	-2,311	-2,311	-2,311	-2,201	적지	적지	-62.9	138,500
	삼성중공업	-377	-446	-486	-622	-696	-696	-696	-696	-628	적지	적지	-12.3	7,750
	현대미포조선	7,155	6,380	5,749	5,730	3,008	3,008	2,993	2,993	2,993	-48%	-1%	21.1	63,100
	한진중공업	-132	-551	-575	-1,206	-1,206	-1,206	-1,206	-1,206	-1,206	적지	적지	-1.2	1,495
두산	두산중공업	682	444	425	32	-243	-243	-243	-243	-235	적지	적지	-41.2	9,660
	두산인프라코어	1,481	1,566	1,595	1,498	1,463	1,463	1,463	1,463	1,462	-2%	0%	5.1	7,480
기계	HSD엔진	-236	-340	-397	-462	-404	-404	-404	-404	-595	적지	적지	-8.9	5,300
	현대건설기계	13,482	12,658	12,301	8,888	4,391	4,256	4,256	4,256	4,255	-52%	-3%	10.7	45,500
	현대일렉트릭	2,484	1,327	1,157	-7,014	-3,953	-3,953	-3,953	-3,953	-4,554	적지	적지	-4.9	22,200
	LS산전	5,074	5,178	5,253	5,055	4,967	4,950	4,950	4,950	4,950	-2%	0%	9.3	46,250
	현대엘리베이터	1,915	1,915	1,620	847	-77	-77	-77	-77	-77	적지	적지	-1,429.1	110,500
방산	현대로템	428	309	313	-71	-371	-450	-450	-450	-450	적지	적지	-62.5	28,100
	한국항공우주	1,349	1,254	1,193	1,226	869	830	830	830	830	-56%	-37%	62.0	33,700
	한화에어로스페이스	612	690	722	721	314	314	317	317	283	-61%	-10%	123.8	35,050
	LIG넥스원	2,192	1,720	959	958	955	955	955	955	955	0%	0%	42.7	40,750
피팅	성광벤드	-58	-81	-105	-31	-106	-113	-113	-113	-152	적지	적지	-74.0	11,250
	태광	302	302	302	483	428	399	399	399	399	-17%	-7%	28.6	11,400
	하이록코리아	1,550	1,477	1,102	1,102	957	957	957	957	957	-13%	0%	17.9	17,150

그룹	종목	2018 BPS(원)								ROE		VALUATION	
		다섯달전	네달전	세달전	두달전	181208	181215	181222	181229	19.01.04	2018	2019	2018 PBR
조선	현대중공업	169,496	174,172	174,661	172,854	168,168	168,196	168,196	168,196	168,196	-1%	0%	0.8
	삼성중공업	12,233	12,234	12,303	12,249	12,184	12,184	12,211	12,211	12,211	-5%	-1%	0.6
	현대미포조선	118,949	116,459	115,380	115,909	58,128	58,128	58,180	58,180	58,180	5%	4%	1.1
	한진중공업	5,338	4,514	3,676	3,676	3,676	3,676	3,676	3,676	3,676	-33%	-77%	0.4
	두산중공업	28,257	28,596	28,596	28,102	28,057	28,057	28,057	28,057	28,057	-1%	3%	0.3
기계	두산인프라코어	9,525	9,703	9,703	10,250	9,872	9,872	9,872	9,872	9,872	15%	15%	0.8
	HSD엔진	12,043	6,177	6,272	6,471	6,748	6,748	6,748	6,748	6,748	-9%	-7%	0.8
	현대건설기계	135,469	132,950	132,448	129,596	65,098	64,830	64,830	64,830	64,830	7%	8%	0.7
	현대일렉트릭	105,168	105,268	104,837	92,618	47,307	47,307	47,307	47,307	47,307	-10%	2%	0.5
	LS산전	42,932	43,004	43,088	43,060	42,979	42,979	42,979	42,979	42,979	12%	12%	0.0
방산	현대엘리베이터	41,903	41,903	41,903	42,087	36,066	36,066	36,066	36,066	36,066	0%	9%	3.1
	현대로템	16,161	16,065	16,021	15,669	15,375	15,257	15,257	15,257	15,257	-3%	4%	1.8
	한국항공우주	11,856	11,660	11,585	11,547	11,111	11,111	11,111	11,042	10,965	5%	12%	3.1
	한화에어로스페이스	41,418	41,255	41,404	41,908	43,395	43,395	43,966	43,966	43,919	1%	3%	0.8
	LIG넥스원	28,924	27,573	27,573	27,532	27,409	27,409	27,409	27,409	27,409	3%	6%	1.5
피팅	성광벤드	15,988	15,934	15,995	16,009	15,957	15,904	15,904	15,904	15,838	-1%	1%	0.7
	태광	17,110	17,110	17,110	16,669	16,627	16,507	16,507	16,507	16,507	2%	2%	0.7
	하이록코리아	25,079	24,896	24,755	24,755	24,792	24,792	24,792	24,792	24,792	4%	5%	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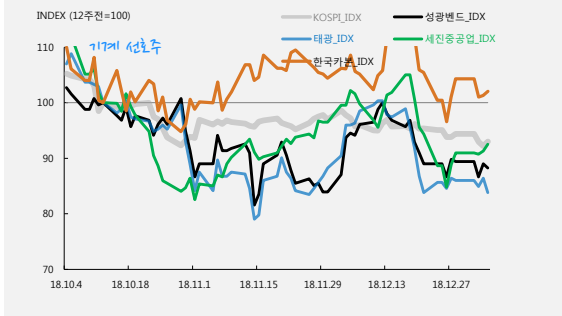
출처: Dataguide

HI 기계 ChartBoo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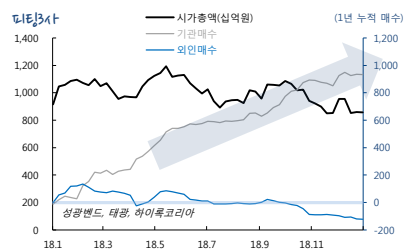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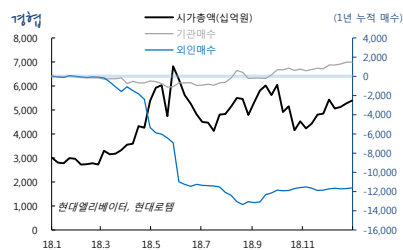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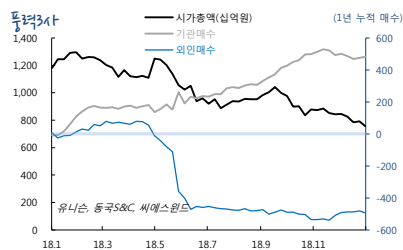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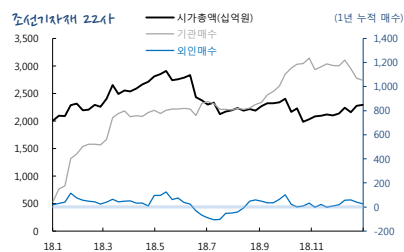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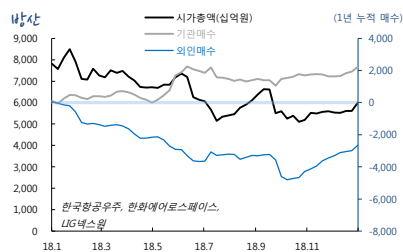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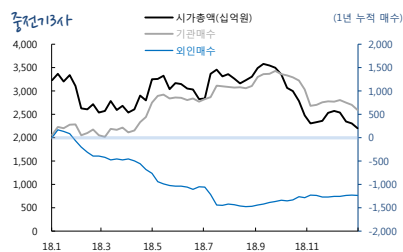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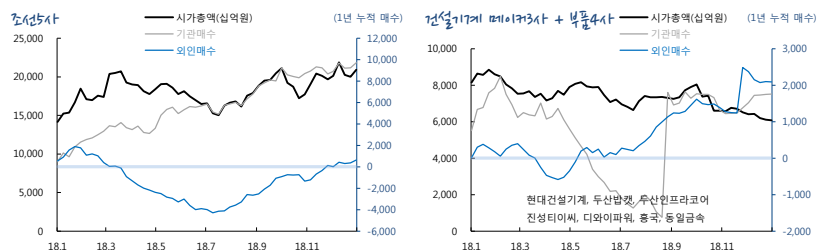
당사 기계 선호주 vs. 시장

▶ 당사 기계 선호주



당사 관찰 기계 업종 전체

▶ 기관, 외인 누적 매수





기계 업종 뉴스

중전기

▷현대일렉트릭 "올해 매출 2조원 전망"

<https://bit.ly/2TwYd1g>

현대일렉트릭은 올해 2조783억원의 매출을 올릴 것으로 전망된다고 3일 공시

▷'실적 쇼크' 현대일렉트릭 차입금 증가

<https://bit.ly/2Tv2N4i>

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현대일렉트릭은 최근 한 달간 기업어음(CP) 1100억원어치를 발행 모두 1년물로 차환 및 운영자금 마련이 목적
지난해 1월(500억원)보다 600억원이나 늘렸음
앞서 지난해 9월에는 2~3년물 총 2000억원 규모의 공모 회사채를 발행
현대일렉트릭 측은 "오는 2월 말에 만기가 돌아오는 3000억원을 상환하기 위해 발행한 물량"이라고 설명
이에 신용평가업계는 영업손실이 지속될 경우 신용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하고 나선 바 있
현재 현대일렉트릭의 신용등급은 A- 수준

▷현대중공업지주, 현대일렉트릭 지분 2만주 취득

<https://bit.ly/2AxINZ7>

현대중공업지주가 현대일렉트릭 (22,200원 250 -1.1%) 지분 2만주를 장내 매수를 통해 취득했다고 2일 공시
취득 후 현대중공업지주의 현대일렉트릭 보유 주식수는 총 734만2944주
지분율도 35.97%에서 36.07%로 증가

건설기계

▷두산밥캣, 이탈리아 법인 청산으로 계열사 탈퇴

<https://bit.ly/2CToF43>

두산밥캣은 자회사가 두산인터내셔널이탈리아가 청산해 계열회사에서 탈퇴했다고 3일 공시
이에 따라 두산밥캣의 자회사 수는 23개에서 22개

▷현대건설기계 "올해 매출액 3.6조원 전망"

<https://bit.ly/2sdmQ1a>

현대건설기계는 올해 연결기준 3조6294억원의 매출액을 올릴 것으로 전망 된다고 3일 공시

큰 기계

▷휘청이는 두산重, 몸집 줄이고 새 먹거리 확대

<https://bit.ly/2QhNvOk>

1일 업계에 따르면 두산중공업은 이달부터 유급휴직, 계열사 전출 등 인력 구조조정을 실시
과장급 이상 부장급 이하를 대상으로 유급휴직을 실시하고 두산인프라코어, 두산밥캣 등 계열사로의 전출을 시행하는 등 경영 악화로 인한 재무구조 개선에 나서는 것
이미 지난해 임원 30% 가량이 줄었고, 직원 400여명이 계열사로 전출
이외에도 지난해 두산중공업은 자산 매각, 인력 구조조정 등으로 수주난에 대응하며 비상경영 체제를 이어왔음
두산중공업은 경영위기를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극복해 나간다는 계획
임원감축, 지분 매각 등 재무구조 개선 작업을 통해 신사업 동력을 확보
기존 원자력, 발전 사업에서 가스터빈, 신재생 등으로 사업 포트폴리오를 전환해 위기 속에서 기회를 찾겠다는 방침

▷현대로템, 1508억원 규모 이집트 메트로 낙찰통지서 접수

<https://bit.ly/2Re8CX6>

현대로템은 이집트로부터 17만2000유로(한화 약 1508억원) 규모의
카이로 메트로 2호선 전동차 48량 및 유지보수 사업 낙찰 통지서를 받았다고 2일 공시

▷현대엘리베이터, 중저속 신제품 'VIVALDI' 출시

<https://bit.ly/2Tu6s2n>

현대엘리베이터가 중저속 엘리베이터 신제품 '비발디(Vivaldi)'를 7일부터 판매한다고 3일 밝힘
봄·여름·가을·겨울 사계절의 빛과 자연을 주제로 디자인한 신제품은 스프링블룸(Spring Bloom), 썸머레이(Summer Ray),
오토메이플(Autumn Maple), 윈터포레스트(Winter Forest) 비발디 4종과 샤인그린, 샤인로즈, 샤인브론즈, 샤인블랙 비발디 프리미엄 4종 등 총 8종
특히 비발디 라인은 잠(Jamb) 일체형 홀버튼과 위치 표시기를 채택해 공사기간을 단축
이 외에도 비발디는 도착 예보 기능, 친환경 바닥 소재, 항바이러스 핸드레일 등 다양한 선택사양(프리미엄 기본 사양)을 적용해 제품 선택의 폭을 넓힘



글로벌 피어그룹 주가 흐름

대분류	티커 / 회사명	시총(백만\$)	1W	1M	3M	3M 추가	1Y	3Y
인프라: 건설기계 / 부품								
건설기계	현대건설기계	1,822	6.6%	-5.4%	-25.7%		-52%	
	두산인프라코어	3,280	-1.4%	-11.8%	-23.7%		-23%	
	두산밥캇	3,280	-2.5%	-7.0%	-24.0%		-14%	
대형	CATERPILLAR	88,596	2.0%	-0.9%	-16.0%		-21%	102%
	KOMATSU	28,397	-3.3%	-21.5%	-33.8%		-46%	24%
	HITACHI CM	6,748	-5.9%	-18.7%	-36.3%		-43%	38%
	VOLVO	37,036	2.5%	-2.3%	-24.3%		-26%	59%
중국	SANY	9,741	-3.2%	-1.5%	-9.1%		-16%	35%
	XCMG	4,493	0.6%	-4.1%	-17.7%		-32%	-13%
소형	DEERE	47,942	4.4%	0.1%	0.9%		-5%	106%
	CNH	16,348	4.1%	-3.6%	-21.6%		-33%	52%
	TAKEUCHI	1,317	-3.8%	-23.4%	-46.9%		-41%	-25%
	TEREX	2,994	3.2%	-6.0%	-29.5%		-40%	66%
건설기계	디와이파워	167	-3.9%	-7.1%	-19.7%		-39%	127%
부품	진성티이씨	174	4.0%	-7.0%	-14.2%		-34%	49%
	우림기계	56	0.0%	-8.9%	-21.0%		-15%	-5%
	중국	59	29.7%	77.4%	55.7%		131%	289%
	동일금속	67	-0.5%	-2.3%	-2.8%		43%	15%
	KUBOTA	20,295	-2.0%	-20.1%	-20.8%		-32%	-14%
	가야바	1,045	-1.2%	-6.6%	-48.4%		-62%	-24%
	Hengli	2,806	-2.9%	-3.1%	-13.8%		-17%	92%

방위산업 / 항공부품								
항공	한국항공우주	3,945	5.6%	4.7%	-4.0%		-30%	-50%
방산	한화에어로스페이스	212	7.8%	9.0%	38.0%		-2%	6%
	LIG넥스원	212	10.3%	15.8%	17.6%		-27%	-61%
	아스트	212	8.7%	4.7%	22.2%		-38%	-44%
	Boeing	208,880	3.4%	-4.5%	-12.1%		6%	152%
	LOCKHEED MARTIN CORP	97,743	1.4%	-7.6%	-23.4%		-20%	24%
	Northrop grumman	55,307	2.3%	-0.8%	-21.9%		-20%	33%
	EADS	95,076	2.2%	-7.3%	-22.3%		-6%	54%
	BOMBARDIER	8,437	12.2%	4.4%	-53.5%		-28%	54%
	EMBRAR	3,497	0.7%	-0.1%	13.0%		-14%	-20%
	ROLLS ROYCE	24,242	1.0%	-0.4%	-16.4%		-4%	48%
	ROCKWELL COLLINS	23,154	0.0%	0.0%	0.4%		3%	62%
	HARRIS CORPORATION	19,745	1.3%	-4.4%	-21.4%		-8%	55%
	GENERAL DYNAMICS	60,622	1.6%	-8.9%	-22.9%		-23%	21%
	SAFRAN	61,753	2.0%	-3.6%	-12.8%		18%	76%
	SPIRIT AERO	9,621	2.4%	-9.3%	-20.9%		-19%	54%
	TRIUMPH	1,161	0.5%	-24.5%	-48.4%		-56%	-66%

공작기계 / 기타 철								
공작기계	화천기계	94	-1.5%	-4.1%	-17.5%		-26%	-22%
기타	와이지원	307	0.1%	-3.6%	-19.2%		-41%	-24%
	신진에스엠	55	2.0%	-0.2%	-18.2%		-25%	-65%
	S&T중공업	197	-2.5%	2.6%	8.6%		-4%	-45%
	Shenyang	813	-2.7%	-7.3%	-19.9%		-41%	-68%
	Amada	3,927	-3.4%	-16.8%	-21.4%		-41%	-15%
	Moriseiki	2,092	-3.7%	-21.8%	-37.0%		-51%	-5%
	Jtekt	4,983	-2.2%	-13.2%	-27.9%		-41%	-36%
	Okuma	1,862	-5.7%	-12.2%	-21.4%		-36%	9%
	Makino	1,081	-8.6%	-21.8%	-26.7%		-39%	326%
	Schuler	1,082	0.0%	-6.9%	-11.8%		-22%	-4%
	Gildemeister	4,124	3.2%	4.0%	0.8%		-3%	22%

대분류	티커 / 회사명	시총(백만\$)	1W	1M	3M	3M 추가	1Y	3Y
에너지: 피팅 / 발전 / 중전기 / 풍력								
피팅	성광벤드	325	1.3%	5.6%	-12.8%		16%	34%
	태광	341	2.6%	-2.6%	-5.5%		-4%	23%
	하이록코리아	286	1.3%	5.9%	-27.8%		28%	30%
발전	두산중공업	1,561	0.7%	5.0%	-5.2%		40%	47%
	비에이치아이	89	1.6%	3.6%	-10.0%		19%	38%
	S&TC	100	2.7%	2.4%	-26.2%		30%	60%
	DONGFANG	3,299	3.5%	2.0%	5.0%		27%	32%
	BHEL	3,761	1.0%	1.5%	1.3%		30%	30%
	MHI	12,498	1.8%	3.2%	-1.4%		10%	23%
	IHI	6,105	7.5%	9.8%	4.9%		28%	7%
	SIEMENS	108,438	2.0%	1.8%	2.8%		17%	19%
	General Electric	110,029	1.6%	1.0%	27.1%		56%	71%
	ALSTOM	10,311	-0.3%	2.3%	2.6%		-3%	26%
중전기	LS산전	2,059	5.6%	-10.7%	-3.0%		31%	4%
	효성중공업	594	5.6%	3.6%	34.3%			
	현대일렉트릭	570	0.0%	2.7%	5.7%		63%	
	ABB	52,239	1.3%	3.4%	3.3%		30%	15%
	Schneider	46,621	0.7%	5.0%	3.8%		18%	20%
	WEG	9,660	5.0%	2.2%	5.8%		-1%	67%
	Crompton Greaves	1,918	0.6%	2.4%	0.6%		19%	
	TBEA	3,795	7.2%	3.9%	1.5%		27%	29%
풍력	씨에스윈드	495	3.3%	3.9%	20.3%		-5%	10%
	유니슨	179	7.0%	20.4%	29.2%		63%	5%
	동국S&C	212	5.1%	3.1%	20.9%		55%	39%
	태웅	256	7.6%	7.2%	20.7%		52%	36%
	VESTAS	13,561	0.7%	1.1%	1.0%		16%	10%
	GOLDWIND	5,672	1.9%	3.3%	3.4%		48%	37%
	NORDEX	1,051	3.1%	5.8%	14.6%		18%	75%
	GOLDWIND	5,672	1.9%	3.3%	3.4%		48%	3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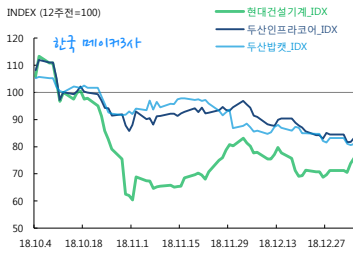
현대로템, 현대엘리베이터 = 경협								
철도	현대로템	2,285	0.9%	-5.9%	-7.9%		46%	109%
	ALSTOM	10,311	-0.3%	-7.3%	-9.6%		-3%	26%
	안saldo	2,925	0.2%	0.0%	3.9%		4%	29%
	Bombardier	8,437	12.2%	4.4%	-53.5%		-28%	84%
	CNR	64,357	0.2%	-9.5%	-13.0%		-4%	39%
	CAF	1,478	-2.1%	2.7%	-0.4%		2%	60%
	CSR	33,804	4.3%	6.3%	8.8%		-9%	-6%
승강기	현대엘리베이터	2,554	3.3%	6.8%	-0.9%		99%	136%
	KONE	28,609	1.8%	-1.2%	-7.9%		-8%	17%
	UTC(OTIS)	111,677	1.6%	-11.5%	-23.5%		-19%	18%
	SCHINDLER	26,134	1.8%	0.6%	-18.3%		-10%	25%
	THYSENKRUPP	14,554	3.0%	-7.5%	-28.9%		-38%	-5%
	MITSUBISHI ELEC.	29,169	-3.3%	-17.4%	-24.4%		-41%	1%
	HITACHI	32,140	-2.6%	-12.6%	-25.9%		-36%	352%
	SHANGHAI ELEC.	9,990	-0.8%	-9.1%	-10.8%		-23%	-30%

HI 기계 ChartBoo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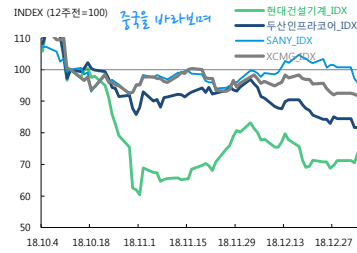


건설기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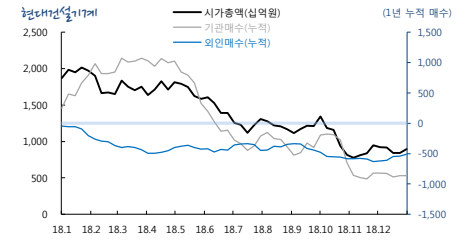
▶ 한국의 메이커 3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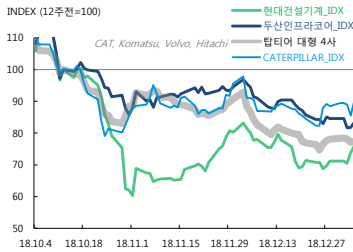
▶ 중국 건설장비 시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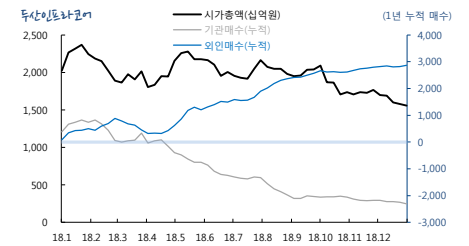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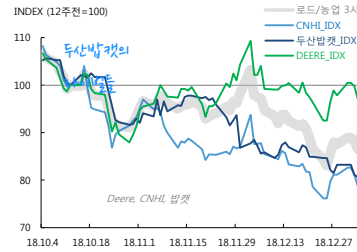
건설기계 수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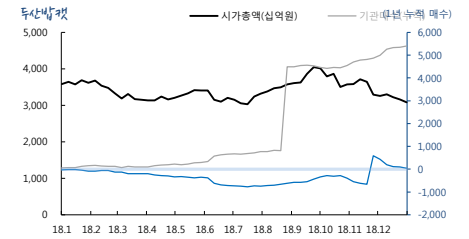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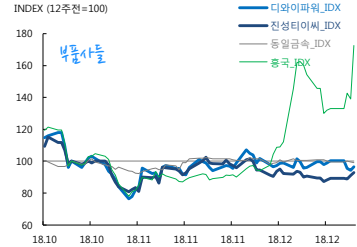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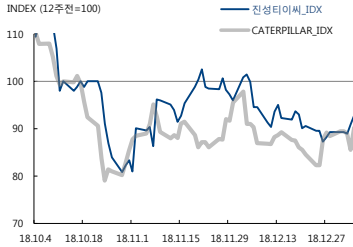
▶ 대형: 두산, 현건기, CAT



▶ 미니 소형에서 두산발켓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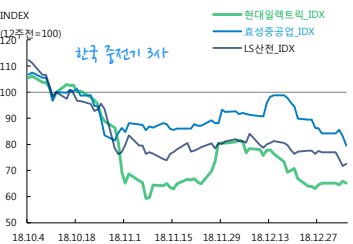


▶ 건설기계 해외 vs 한국 부품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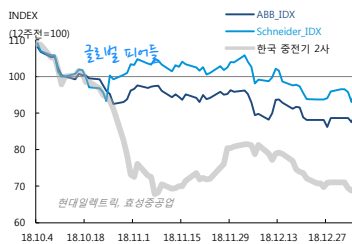


중전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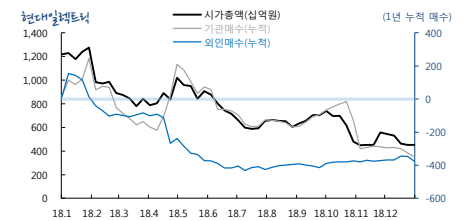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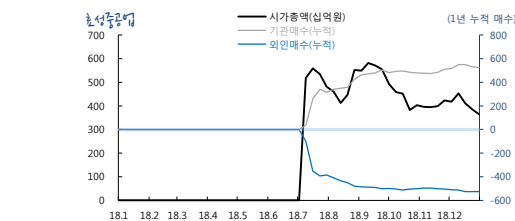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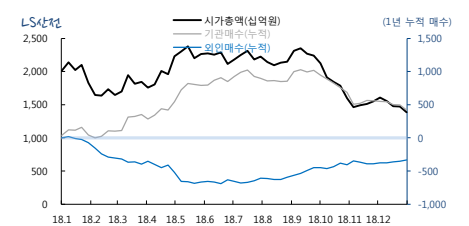
▶ 한국 중전기 3총사



▶ 글로벌 피어 2사



중전기 수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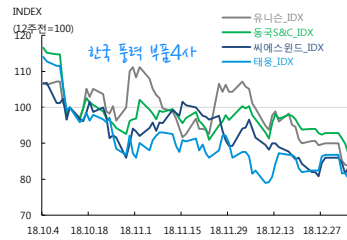


HI 기계 ChartBoo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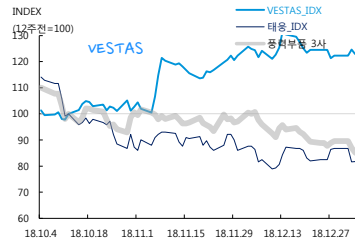


풍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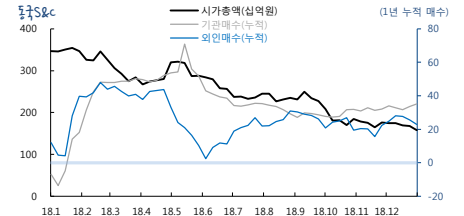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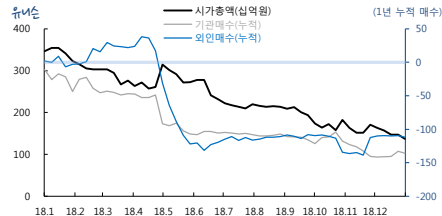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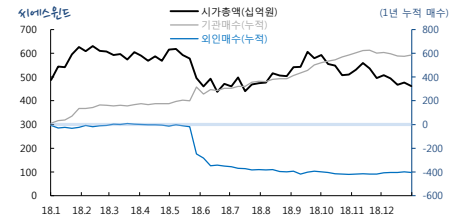
▶ 한국 풍력 부품4사



▶ 한국 풍력 vs. VESTA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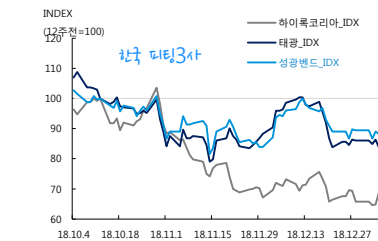


풍력 수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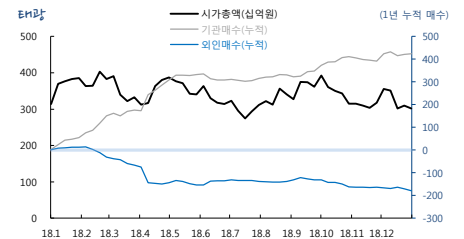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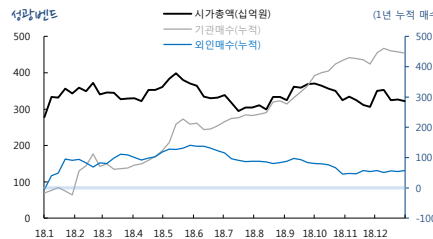


피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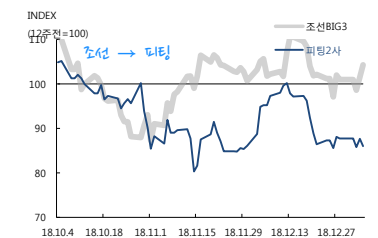
▶ 피팅 3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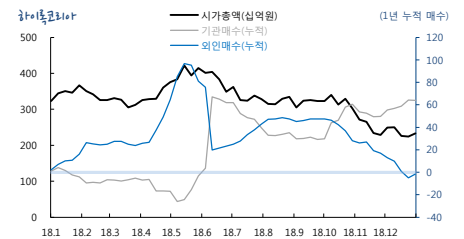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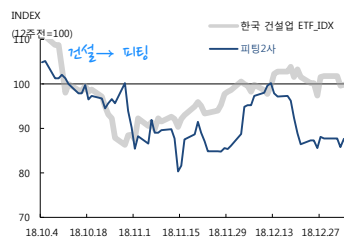
피팅업 수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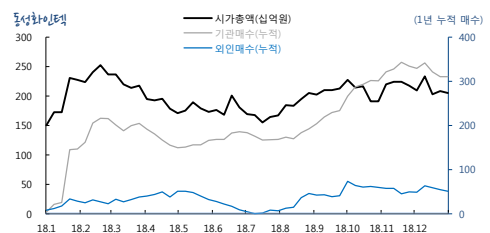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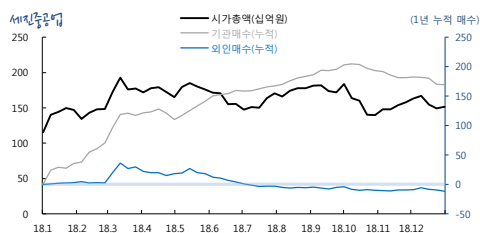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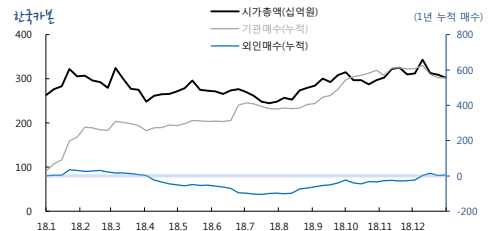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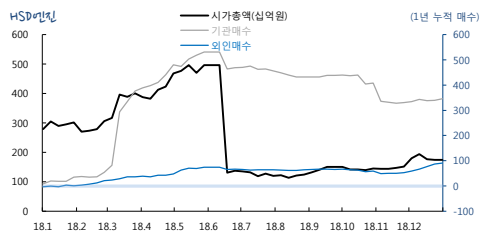
▶ 조선 → 피팅2사



▶ 건설 → 피팅2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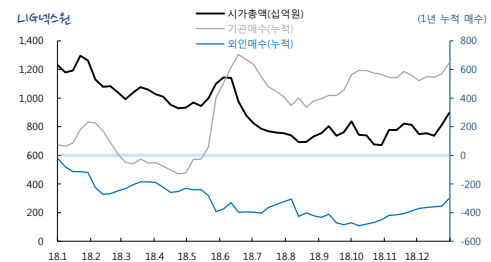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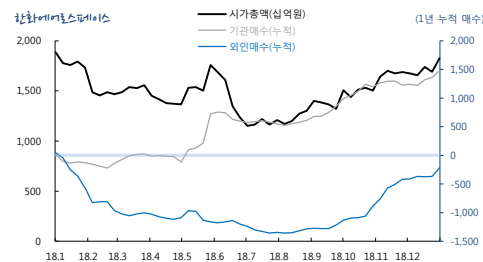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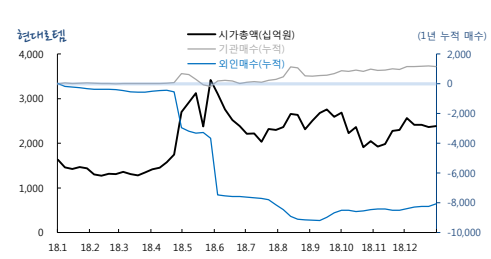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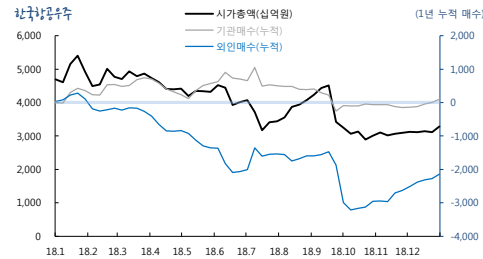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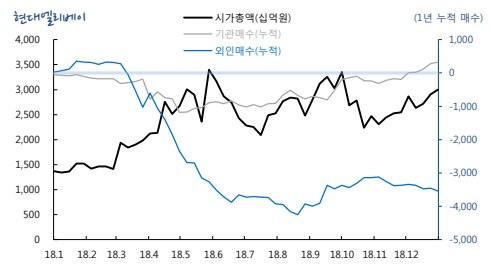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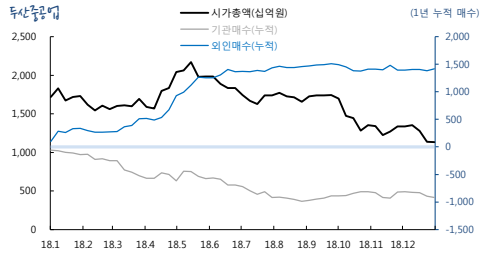


조선기자재 수급





기타 큰 기계



당 보고서 공표일 기준으로 해당 기업과 관련하여,

- ▶ 회사는 해당 종목을 1%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 금융투자분석사와 그 배우자는 해당 기업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 당 보고서는 기관투자자 및 제 3자에게 E-mail등을 통하여 사전에 배포된 사실이 없습니다.
- ▶ 회사는 6개월간 해당 기업의 유가증권 발행과 관련 주관사로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 ▶ 현대중공업, 현대미포조선은 당사와 계열사 관계에 있습니다.
- ▶ 당 보고서에 게재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작성자 : 최광식)

본 분석자료는 투자자의 증권투자를 돕기 위한 참고자료이며, 따라서, 본 자료에 의한 투자자의 투자결과에 대해 어떠한 목적의 증빙자료로도 사용될 수 없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작성자 및 당사의 허가 없이 전제, 복사 또는 대여될 수 없습니다. 무단전제 등으로 인한 분쟁발생시 법적 책임이 있음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1. 종목추천 투자등급 (추천일기준 증가대비 3등급) 종목투자자의견은 향후 6개월간 추천일 증가대비 해당종목의 예상 목표수익률을 의미함.(2017년7월1일부터 적용)
-Buy(매 수): 추천일 증가대비 +15%이상 -Hold(보유): 추천일 증가대비 +5% ~ -15% 내외 등락
-Sell(매도): 추천일 증가대비 -15%이상
2.산업추천 투자등급 (시가총액기준 산업별 시장비중대비 보유비중의 변화를 추천하는 것임)
- Overweight(비중확대), - Neutral (중립), - Underweight (비중축소)

하이투자증권 투자비용 등급 공시 2018-12-31 기준

구분	매수	증립(보유)	매도
투자의견 비율(%)	90.09%	9.10%	-